

■가처분 판결 이후 맞대결 구도

# 정화측 주지인사 분규확대

## 총무원 새 집행부 구상...정화측 '교시봉행' 맞서

11일 서울지법에서 "정화개혁회의는 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총무원측과 정화회의측의 대립이 맞대결 구도로 치달고 있다.

송소한 총무원측은 조속한 시간 내에 청사를 반환 받고 29일 총무원장 선거를 치뤄 연내에 사태해결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11일 판결을 거부한채 "제2정화불사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정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무원과 중단정화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총회, 교구본사주지회의가 14일 중앙선거위가 결의한 29일 총무원장 선거 실시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 조계종 사태는 또다른 노정을 밟게 됐다. 총무원측은 15일 종정비대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원칙속에 청사반환 노력과 선거체제 지속이라는 두 길을 동시에 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총무원측이 선거일정을 전격적으로 세운데는 15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19개 본사가 참여해 사법부의 판결 존중과 선거일정에 협

조한다는 결의를 한 것과 7일 제 136회 임시총회가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하는데 상당한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대해 정화회의측도 16일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29일 이전에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교구본사급 사찰과 주요말사에 대한 주지인사도 단행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화회의측은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선출 또는 본사주지 추천·원로회의 인준 등의 내용으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화회의측의 교구본사 주지 임명과 선본사등 직영사찰 해제 조치는 '세불리기'와 '재정확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란게 주변의 분석이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빠르게 행동화 함으로써 조계종 사태는 더욱 가파른 길로 치달고 있다. 이미 정화회의측은 9일자로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해산스님을 해임하고 대우스님을 신임주지로 임명, 대우스님측이 선운사 접수실을 폐쇄하는 가운데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정화회의측의 선본사의 직영사찰 해제도 적잖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월하스님이 다시 '담화문'을 발표해 "제2의 정화라는 신념

으로 개혁불사를 중단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화회의측이 그간 품어 온 '종정 교시 봉행'이란 명분에 더욱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때문에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계종 분규가 확산되는 것이 아나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화회의측이 각 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경우 지역별로 사찰접수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총무원측은 금강호법단을 창단시켜 맞서고 있다.

18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된 이후 총무원측은 공권력의 개입을 공식요청할 계획이다. 때문에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공권력을 앞세운 법집행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이 맞대결 구도를 풀 수 있는 묘약이 될 것 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한종단 두총무원장은 있을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이 많다는 것과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불교 내부에서 문제를 푸는 지혜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연태·정성운 기자  
(ytlm@buddhapia.com)



◇법불교도연대회의는 14일부터 매일 낮 12시 30분조계사 정문 앞 보도에서 중단집서회복을 위한 참회집진 법회를 갖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는 15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30분 총무원 임시 사무실이 있는 천마빌딩 앞에서 대응전 방화 규탄법회를 갖고 있다.

# 연내해결 '동상이몽' 인가

11일 판결은 종도인지 반영(12일)

●...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사법부의 판결은 엄격한 법 적용의 선례이자 종도대중과 국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반영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단 증진회의 열기로(14일)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4일 저녁 태워호텔에서 법장, 법타, 종결, 보선스님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중단 증진회의를 열어 중단사태의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정교시가 사법보다 우선"(14일)

●... 정화회의 홍보실장 남정스님은 서울지법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14일 "종정예하의 교시가 사법적 판단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화회의는 11일과 12일 94년 판결을 예로 들며 "조계종단의 위계질서와 종교 고유의 전통을 파괴할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근스님등 6명 의원직 제명(14일)

●... 조계종 중앙총회는 14일 오후 2시 봉은사에서 제137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11월 30일 승려대회 결의에 따라 55명 의원스님들의 발의와 만장일치로 정화회의측 중앙총회 의원 6명을 제명했다. 총회가 이날 제명된 스님은 현근, 정우, 성문, 법일, 현소, 원학스님 등이다. 한편 총회는 7일 봉은사에서 속개된 제136회 임시총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제29대 총무원장선거에서 기존의 선거인단을 인정하고 후보등록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진법회, 규탄법회 '공방' (14일)

●... 법불교도연대회의는 14일부터 매일 낮 12시 30분 중단집서 회복을 위한 참회발원 정진법회를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 입구 보도변에서 봉행 하고 있다.

정화개혁회의 스님과 조계사 신도 60여명도 15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30분 총무원측 임시사무실이 있는 천마빌딩 앞에서 대응전 방화규탄법회를 열고 있다.

금강호법단 창단(15일)

●...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로 종단이 안정 될 때까지 호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금강

## 가처분 판결이후 조계종 사태

호법단이 15일 오후 2시 송현클럽에서 창단됐다. 18개 본사의 160여 스님들이 참가한 창단식에서 금강 호법단은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종단장에 신록사주지 세영스님을 선임했다.

청사반환 법집행 요구(15일)

●... 조계종 중단 정화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는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총무원청사 반환을 위해 사법부에 대해 조속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자구책 모색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3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9일 실시될 총무원장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력하며 새 종정의 추대 문제도 풀어 나가기로 했다.

19본사 "사법부 판결 존중" (15일)

●... 조계종 총무원장은 15일 정오 서울 하림각에서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중단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19개(대리및 위임포함) 본사주지 스님들은 △11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불교도 연대회의 출범(16일)

●... 중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법불교도연대회의(공통대표 도법, 박광서 등 7명)가 16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4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출범했다. 출범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종단 안정과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2면>

정화회의, 선본사 직영해지(16일)

●... 정화회의는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상임위원 78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화회의는 △선본사 직영사찰 해지 △호법분과위원장 법일스님 선임 △정화회의의 기구표 및 운영내규 개정 등을 결의했다.

정화회의의 '개혁 방향' 배포(16일)

●... 정화회의의 기획실은 16일 '정화개혁회의 중단개혁 방향'을 배포했다. 기획실은 △수행·포교 중심의 종단운영·종정 및 원로회의의 권한 강화 △본사중심제 확립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화회의는 '종단개혁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연다.

13개 재가단체 성명발표(16일)

●... 법무부전국교회연합회등 13개 교계 재가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스님들은 더 이상 분쟁을 확산시켜서는 안되며, 대화로써 사태를 해결하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승가대 동문회장 효종스님 기자회견(16일)

●... 중앙승가대학교 동문회장 효종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준법에 의거해 치뤄져 하루빨리 종단 안정을 이뤄야 한다"며 "조속한 종단안정으로 중앙승가대 이전불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하종정 담화문 발표(17일)

●... 월하종정은 1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의 정화라는 신념으로 개혁불사를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하스님은 "다시는 탐욕심이 종단에서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일심동체가 되어 이들을 정화하자"고 밝혔다.

서울지법 '청사 퇴거' 집행(18일)

●... 서울지법의 11일 가처분 판결에 대한 집행이 18일 시도됐으나 정화회의측과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1면>

중단대표 '교시봉행 촉구' (18일)

●... 정화회의는 18일 중단협의회와 종정연합회 소속 중단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성종 12개 군소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계종 종정의 교시 봉행 촉구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종정·원로 화합안 따르겠다" (18일)

●... 정화회의는 18일 성명을 통해 "종단사태 수습을 위해 종정스님과 원로스님들이 화합안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라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며, 청사 철수문제 역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ytlm@buddhapia.com)

조계종 사태 관련기사는 인터넷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감히 종정스님께 진언드립니다. 스님께서 아시겠지만 조계종의 망신살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디 한군데 가릴래야 가릴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알려져 국제적으로 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스님의 심기가 편하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교시도 내리시고 담화문도 발표 하셨지만 조계종 사태는 갈수록 점점 가중됩니다. 스님, 조계사는 지금 절이 아닙니다. 도량을 패허로 만들면서까지 잘못을 따질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종단의 웃 어른이신 스님께서 이 싸움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루속히 승자도 패자도 없는 본래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잘못을 가려 경책하시기 보다 모두를 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시에 곁을 들이던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삼으셨듯이, 스님 특유의 그 온화하신 미소로

종단의 불화를 물거품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에게 매를 든 부모가 잡자는 자식의 이마를 짚으며 안스러워 하듯, 상처입은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스님의 한 말씀에 종단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면 그 처방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화의 안전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무원장선거, 사면복권등의 문제는 무지몽매한

## 목어

## 종정스님께

이 다들부터 가라앉힌 후에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고무신을 손수 닦아 신으시는 스님의 깨끗하신 성품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따뜻하게 대중을 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님께서는 화합차원에서 멀빈 또는 제적승의 사면복권을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징계받을 스님들이 생기면 또 사면복권이 거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런일 없이 종도들이 화합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시시오. 세속법이고 종헌법이고 초법이고 따질 것 없이 스님의 한 말씀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스님, 법력을 보여 주십시오. 이제 끝 새해가 됩니다. 이 수치스런 싸움판을 내년에로 이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계사도 더 이상 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사부대중이 도량을 정비하고 참회 대법회를 열어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제자리를 찾아 더욱 정진토록 해주십시오. 스님의 한 말씀에 조계종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세속법에의 의존여부도 스님의 그 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 간곡히 청하옵니다. 사부대중의 가슴을 적실 감로법어를 내려주시시오. 그리하여 새해아침 화합대중의 세배를 받으시옵소서.

# 공 고

총헌 제53조 및 총무원장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 불기2542(98). 12. 29. (화요일) (음. 11월 10일) 오후1시-4시까지
2. 선 거 장 소: 조계사 대웅전
3. 총무원장 자격: 승랍30년이상, 연령 50세이상, 법제2급이상의 비구로서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후보자등록기간: 불기2542(98). 12. 21-22. (2일간)
5. 입후보자등록서류: 1) 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2부(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5매
6. 입후보자등록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총회 사무처)
7. 선거권 자격(선거권자): 중앙총회의원 및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된 선거인단
8. 문 의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02-735-5860)

불기 2542(98). 12. 14.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운